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도 지역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었고, 분석대상은 285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beta=.551, p<.001$), 정서인식명확성($\beta=.288, p<.001$), 대학생활만족도($\beta=.092, p<.001$)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47.4%이었다.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감능력($r=.641, p<.001$), 정서인식명확성($r=.44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능력과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 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서인식명확성, 대학생활을 활기 있게 해주고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개별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정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반복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연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ic abilit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college students in some provinces. The research period was November and December 2019. Two hundred and eighty five students were analyze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empathy ($\beta=.551, p<.001$), emotional clarity ($\beta=.288, p<.001$),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beta=.092, p<.001$)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7.4%. Interpersonal competenc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mpathy ($r=.641, p<.001$) and emotional clarity ($r=.443, p<.001$).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ustomized individual counsel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empathy. This encourages nursing college students to understand emotional clarity, which helps them recognize others' emotions as well as their own and make proper reactions. Accordingly,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which adds more vitality to their college life, will increase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repeating and in-dep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nclud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 standardized research tool will be needed to measure interpersonal competence.

Keywords : Empathy, Emotional Clarity, Interpersonal Competence, Nursing Studen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Jungwon University Research Grant(과제관리번호: 2019-039)"

*Corresponding Author: Jong-Im Kim(Jungwon Univer)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March 9,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May 14,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과도기적 시점이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 시기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 시기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대학생 실태조사에서도 대학 생활 시 대학생들은 경제문제와 학업 문제 다음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대학 시기에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외로움, 불안, 우울 등 정서적인 어려움과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는 것으로[3]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취업 시 대상자들에 대한 지식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 실제로 임상에서 간호사들은 업무 관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5].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성장해 가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 되어야 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복합적인 과정으로 서로를 알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먼저 개방하고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지, 촉진하는 과정으로[6] 이것은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낮추고[7],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8]. 그렇지만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낮춤으로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9]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는 졸업 후 간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심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예측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한편, 공감능력은 타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10],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이며, 간호사에게는 대상자와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11]. 또한 공감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므로[12], 간호대학생이 간호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구가 필요하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능력으로[13], 정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고 표현할지를 결정하며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14].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15],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자신의 욕구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감소되는 것으로[16]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더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나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대인관계는 이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17] 이 시기에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가상공간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중하게 되고 인격적 유대를 갖는 공동체가 상실되어[18], 면대면 의사소통 방식의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은 소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더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19], 그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대인관계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구체적인 선행 연구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21], 대인관계 능력과 공감능력[22], 자아 존중감[1], 자아 탄력성과의 관계[23] 등 단편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만족스런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알아보고,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분포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기말고사 직전에 설문지 수집이 있을 예정임을 미리 공지하였다.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 거부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무기명으로 진행됨을 강조하였다.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수거하였으며, 설문 소요된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24]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6개로 산출했을 때 적정표본 크기는 146명이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임상실습과 수업 교체 시기와 학기말 준비 기간의 예민함을 고려하여 부정확한 설문지가 많을 것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서면 동의한 대상학과 학생 292명에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89부 이었으며,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2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봉사활동 경험유무,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임상실습 경험유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은 Salvey 등[14]이 개발한 특질상위기분척도(Trait Meta Mood Scale: TMMS)를 Lee 등[25]이 번안한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 중 내용구성 및 내적 타당도를 산출하였고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와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없다',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등 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된 두 문항 중에 한 문항만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타당도 검증 후 총 8문항으로 진행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등[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2$ 였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26]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27]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공감 15문항과 정서적 공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0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6$ 이었다.

2.3.3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의 측정도구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28]가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 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과 Kim[2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9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처음관계 맺기 8문항, 타인에 대한 불쾌감 조장 8문항, 자기노출 8문항, 정서적 지지 및 조언 8문항, 대인갈등 다루기 7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2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8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인간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이,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임상실습 경험유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58명(20.4%), 여자가 227명(79.6%)이었으며, 1학년 72명(25.3%), 2학년 73명(25.5%), 3학년 82명(28.8%), 4학년 58명(20.4%)이었다. 대학생 생활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가 140명(49.2%)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는 113명(39.6%)로 '불만족한다' 32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50명(52.6%)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69명(24.2%) 이었고, 봉사활동 경험유무에서는 '하고 있다'가 224명(78.6%)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264명(92.6%)이 '하고 있다'고 하였고,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서는 140명(49.2%)이 '경험이 있다'로 응답하였고, 145명(50.8%)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8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58	20.4
	Female	227	79.6
Grade	Freshman	72	25.3
	Sophonmore	73	25.5
	Junnior	82	28.8
	Senior	58	20.4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Satisfied	113	39.6
	Common	140	49.2
	Unsatisfied	32	11.2
Credit	High	69	24.2
	middle	150	52.6
	Low	66	23.2
Volunteer experience	Yes	224	78.6
	No	61	21.4
Part-time experience	Yes	264	92.6
	No	21	7.4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40	49.2
	No	145	50.8
Total		285	100.0

3.2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평균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점수범위가 1-4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26.6±4.15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점수 범위는 1-150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104.2±10.35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공감의 점수범위가 1-75점으로 평균값은 51.6±5.69, 정서적 공감의 점수범위가 1-75점으로 평균값은 52.6±5.9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점수범위는 1-195점으로 전체 평균값은 142.5±16.24이며, 하위영역으로 처음관계 맺기의 점수범위는 1-40점으로 평균값은 27.9±4.91, 타인에 대한 불쾌감주장 점수범위는 1-40점으로 평균값은 27.9±3.49로 나타났으며, 자기노출은 점수범위가 1-40점으로 평균값은 28.2±3.92, 정서적지지 및 조언은 점수범위가 1-40점으로 평균값은 29.4±3.72, 대인갈등 다루기는 점수범위가 1-35점으로 평균값은 24.9±3.34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성별($t=-1.99, p=.047$), 대학생활만족도($F=3.82, p=.023$), 아르바이트 경험 ($t=7.28, p=.006$), 임상실습경험($t=4.80, p=.02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에서 여학생이 26.9±3.94로 남학생 25.7±4.79 보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군이 27.3±4.39, 보통으로 응답한 군 26.4±3.72, 불만족인 군 25.2±4.63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경험은 경험이 없는 군이 27.3±6.27로 경험이 있는 군 26.6±3.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경험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군이 26.7±3.78로 정서인식 명확성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성별 ($t=-3.06, p=.002$), 대학생활만족도($F=5.48,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105.1±10.19로 남학생 100.5±10.28 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군이 106.3±10.94로 만족도가 낮은 군 99.9±8.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가 만족한다, 보통인 군이 대학생활에 불만족한다는 군 보다 공감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성별($t=-2.41, p=.017$), 대학생활 만족도($F=9.56, p<.001$), 봉사활동 유무($t=2.02, p=.0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143.6±16.10으로 남학생 137.9±16.13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이 146.7±17.39, 보통인 군 141.0±15.15, 불만족 한다는 군 133.0±11.89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만족한다는 군과 대학생활만족도가 보통인 군이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봉사활동 유무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군이 143.5±16.58로 봉사활동 경험이 없

Table 2. Degree of Emotional clarity, Empa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85)

Variables		M±SD	Range
Emotional clarity	Total	26.6±4.15	1-40
Empathy	Cognitive empathy	51.6±5.69	1-75
	Emotional empathy	52.6±5.96	1-75
	Total	104.2±10.35	1-150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27.9±4.91	1-40
	Claiming offense to others	27.9±3.49	1-40
	Self-exposure	28.2±3.92	1-40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29.4±3.72	1-40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24.9±3.34	1-35
	Total	142.5±16.24	1-195

Table 3. Differences in Emotional clarity, Empa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5)

Variables		Emotional clarity		Empathy		Interpersonal competence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Gender	Male	25.7±4.79	-1.99(.047)	100.5±10.28	-3.06(.002)	137.9±16.13	-2.41(.017)
	Female	26.9±3.94		105.1±10.19		143.6±16.10	
Grade	Freshman	26.0±4.09	1.50(.214)	104.7±10.8	1.72(.161)	141.0±16.73	2.14(.095)
	Sophomore	26.7±4.72		105.7±9.0		144.6±14.81	
	Junior	26.5±3.96		102.1±11.2		139.7±14.87	
	Senior	27.5±3.63		104.5±9.7		145.5±18.58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Satisfied	27.3±4.39a	3.82(.023)	106.3±10.94a	5.48(.005)	146.7±17.39 ^a	9.56(<.001)
	Common	26.4±3.72a	a>b	103.5±9.85 ^a	a>b	141.0±15.15 ^a	a>b
	Unsatisfied	25.2±4.63 ^b		99.9±8.84 ^a		133.0±11.89 ^b	
Credit	High	26.8±4.56 ^b	2.93(.050)	104.8±10.53	1.29(.275)	144.3±17.29	2.39(.093)
	middle	27.0±3.91 ^a	a>b,c	104.7±10.10		143.2±15.52	
	Low	25.6±4.10 ^c		102.4±10.69		138.7±16.40	
Volunteer experience	Yes	26.6±4.07	.03(.861)	104.8±10.16	1.80(.072)	143.5±16.58	2.02(.044)
	No	26.8±4.45		102.1±10.85		138.7±14.48	
Part-time experience	Yes	26.6±3.94	7.28(.006)	104.2±10.87	.98(.322)	142.6±16.17	.52(.601)
	No	27.3±6.27		103.8±8.93		140.7±17.53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26.7±3.78	4.80(.029)	103.0±10.67	-1.35(.176)	141.2±14.64	-.72(.470)
	No	26.5±4.52		105.4±9.96		143.8±15.84	
Total		26.6±4.15		104.2±10.35		142.5±116.24	

는 군 138.7±14.48보다 대인관계 유능성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공감능력($r=.6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명확성($r=.443,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은 정서인식명확성($r=.25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대학생활동만족도, 성별, 봉사활동 유무,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905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01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14-1.109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을 예측변수로 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5.97, p<.001$), 대인관계 유능성을 수정된 R^2 는 49.2% 설명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beta=.290, p<.001$), 공감능력($\beta=.543, p<.001$), 대학생 활동만족도($\beta=.089, p=.042$)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clarity,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Subjects (N=285)

Variables	Interpersonal competence		Empathy		Emotional clarity	
	r	p	r	p	r	p
Interpersonal competence	1					
Empathy	.641	<.001**	1			
Emotional clarity	.443	<.001**	.251	<.001**	1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N=285)

Variables	B	SE	β	t/F	p-value
Constant	20.192	7.546		55.97	.000
Gender*	.523	1.796	.013	.291	.715
Volunteer experience*	-2.276	1.679	-.064	-1.506	.133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1.813	.888	.089	-2.041	.042
Emotional clarity	1.135	.172	.290	6.588	.000
Empathy	.852	.070	.543	12.507	.000

R²=.501, Adj R²=.492, p<.001

*=Dummy variabl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평균값으로 볼 때, 대인관계 유능성은 점수범위가 1-195점으로 평균값은 142.5점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9]의 5점 만점 점수의 환산한 평균점수 143.9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여겨지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학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 및 평가 시기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차이는 성별, 대학생활만족도, 봉사활동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17]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학생 생활만족도는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30]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관련되기 때문[30]인 것으로 해석되며, 봉사활동은 참여경험을 통

해 타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확실한 결론을 위해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대인관계기술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대학생 시기는 그 어느 발달단계 보다 중요[1]하므로 의사소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시작시기부터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성이 높은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집단갈등의 해소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31]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과 공감능력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대인관계 유능성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Chung[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능력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에서 성별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왔으며,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대학생활을 만족한다는 군(106.3±10.94)과 보통인 군(103.5±9.85)이 불 만족하다는(99.9±8.84) 군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나 Chae[23]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일상생활 전반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23] 미치고, 상호간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보여 진다. 따라서 공감

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공감능력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낮거나[33] 학년이 높을수록 공감능력 향상되어 높아[34] 연구마다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력이 높은 또 다른 변인은 정서인식명확성이며,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양의 상관관계로 관련성이 높았다. 선행연구[35]에서 보면 정서인식명확성은 야기하는 문제에 분명한 대처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이 높으면 사회적 불안이 낮아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정서인식이 명확하면 자신의 권리나 불편한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감이 생기며, 적절한 표현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35] 하였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잘 인식할 수 있어 적절한 자기개방과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인식명확성 향상을 위한 전략 및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만족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23]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활만족도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게[32]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생활만족도는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도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요인은 공감 능력과 정서인식 명확성이었고,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30] 대학생 생활만족도가 바람직한 대학생 및 대인관계와 관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36]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32]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감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높이거나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만족스

런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 자아인식명확성, 대학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련성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은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봉사활동 유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감능력과 정서인식명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공감능력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연구결과이며,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정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반복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성별, 대학생활만족도, 봉사활동 유무가 설명력이 낮았던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G. J. Na, E. H. Na.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the degree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nursing and health science colla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9, pp. 206-221,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9.205>
- [2]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freshmen in the 2014 academic year,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6, 2014
- [3]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634-64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4] B. N. Doh, Y. S. Kim, H. M. Kim, H. S. Kim, H. S. Park, J. M. Seng, H. R. Ahn, K. O. Oh, K. R. Lee, K. J. Lee, M. R. Lee, S. Y. Lee, J. Y. Lee, H. K. Lee, W. H. Jeon, J. Choi,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Seoul: Jungdam Publishing, pp. 105-168, 2009.
- [5] H. J. Kwon, H. S. Kim, G. S. Choi, K. S. Lee, Y. H. Sung,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d at medical center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3, No. 2, pp. 113-124, 2008.
- [6] E. Polan, D. Taylor, "Human development and health promotion", Hyunmoonsa, pp. 1-423, 2014.
- [7] S. J. Ju, "The Effects of human relationships class on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 leve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Vol. 19, No. 7, pp. 79-99, 2012.
UCI : G704-000387.2012.19.7.009
- [8] H. D. Lee, "Step-by-step development proces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 No. 1, pp. 35-61, 1998.
- [9] Y. H. Kwon, O. G. Kwag,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L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1, pp. 4441-4448,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2.229>
- [10] D. Rogers, C. Hudson,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2, No. 1, pp. 119-132, 1995.
DOI: <https://doi.org/10.1007/BF01740298>
- [11] S. Y. Chung, "The effects of breath meditation with neurofeedback on memory and concentration of healthy adult volunt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4.
- [12] Penprase, B. Oakley, B. Temes, R. Driscoll, D. "Empathy as a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2, No. 4, pp. 192-197, 2013.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30314-02>
- [13] C. L. Gohm, G. L. Clore,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4, pp. 594-607,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4.3.594>
- [14] P. Salovey, J. D. Mayer, S. L. Goleman, C. Turney, P.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ington*, DC: APA 125-154, 1995.
DOI: <https://doi.org/10.1037/10182-006>
- [15] M. Berking, P. Wupperman, "Emotional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recent findings, current s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Vol. 25, pp. 243-255, 2012.
DOI: <https://doi.org/10.1097/yco.0b013e3283503669>
- [16] S. M. Park, C. D. Kim, C. S. Kyung,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f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00-311,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00>
- [17] H. S. Kim, W. J. Park, T. H. Ha,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9-237, 2006.
- [18] J. H. You, "Psychology and consultation for the youth", pp. 12-339, Yansewon, 2014.
- [19] H. J. Jang, Y. K. Kwang,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phone over-usage focusing on self control, mental health and interrelationship",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149-154,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46>
- [20] H. H. Jung, J. N.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problem between narcissism propensity personal of female university", *Journal of Korea Counseling*, Vol. 12, No. 5, pp. 1599-1611, 2011.
- [21] H. M. Ki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8, No.4, pp. 399-408, 2009.
- [22] M. Jong,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14-4620,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614>
- [23]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95>
- [2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5] S. J. Lee, S. K. Lee.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domain expi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1, No. 1, pp.

95-116, 1997.

- [26] M. H. Davis.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ss, 1996.
DOI: <https://doi.org/10.4324/9780429493898>
- [27]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28] D. Buhrmester, W. Fo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8.
- [29] C. D. Kim, S. I.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student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Institute*, Vol. 35, No. 1, pp. 83-95. 1999.
- [30] H. S. Jeong,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5, pp. 2635-2647. UCI :G704-000930.2012.14.5.025
- [31] M. H. Kim,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55-64. 2008.
- [32] M. S. Chung,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32-340,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32>
- [33] S. E. Wilson, J. Prescott, O. Becket, "Empathy levels in first and third year students in health and non health discipline",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Vol. 76, No. 2. pp. 1-4, 2012.
DOI: <https://doi.org/10.5688/ajpe76224>
- [34] H. J. Yeo,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177-18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77>
- [35] H. W. Lee, D. M. Yum, M. H. Le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ood awar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30, No. 2, pp. 415-433, 2014.
- [36] M. A. Kim, K. I. Kwon, "A study on the emotional clarity and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f resilient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6, No. 1, pp. 15-32, 2008.
DOI: <https://doi.org/10.35151/kyci.2008.16.1.002>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